

민주 최고위원-시도지사 정국현안 연석회의

강운태 “집권위한 야권통합은 문제... 절차 지켜야”

박준영 “FTA 농업대책 외면... 농사 그만 두라는 것”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1일 야권 통합에는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지만, 절차와 대상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농·어업피해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7명 전원이 참석했다.

2시간1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야권 통합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였다.

강 시장은 야권 통합 문제와 관련,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집권을 위해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어야 모두 공감할 수 있다. 내달 17일 일정을 못박아 놓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현재 통합이 민주당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당내 절차 위반 아닌가”라며 “너무 극우·극좌로 편향돼선 안 된다.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도 “7명의 광역단체장을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스스로 자존심과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집권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 /연합뉴스

사안마다 온도차... 갈등 기류 표면화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통합도 할 수 있다. 통합은 민노당 등 진보정당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통합에 대한 걱정이 많다. 23일 중앙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 유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박준영 최고위원은 통합엔 공

감을 표하면서도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당 틀 내에 있어서도 충분히 내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 (손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신당을 추진하려면 당을 떠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문제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특성(농촌·도시형)에 맞는 농어업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성급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다음달 초 예산 처리 후 논의를 거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 뒤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이다. 수차례 농업피해 대책을 건의했는데, 정부의 대책안은 농민들에게 ‘농사 그만 두고 떠나라’는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송 시장과 안 시장은 “지난 정권 때 한미 FTA가 추진됐다. 명분 없는 말 바꾸기를 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말할 때 아니다, 기다려 달라” 공금증 증폭

F1 미션 박준영 지사, 버니 회장과 무슨 얘기 나눴나

“기다려 달라,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버니 에클레스턴(Bernie Ecclestone) F1 매지니먼트(FOM) 회장의 단독 회담 결과에 대한 공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회담이 배석자 없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일절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16~18일 영국 런던의 FOM 본사를 방문해 버니 회장과 단독 회담을 한 박 지사는 21일 F1 대회 개최권료 인하를 위한 협상과 관련,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주최로 열린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가 끝난 뒤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회담 결과 버니 회장의 입장에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회담 내용을 언급하

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였다. 협상 뒤 전남도 안팎에서 제기되는 평가는 대조적이다. 우선, 협상 전부터 부정적 기류가 팽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놓을 게 없는 것 아니겠나”는 반응이 적지 않다.

버니 회장이 한국측 재협상 요구에 강한 거부의를 밝히는가 하면,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한 신용장(L/C) 개설 기한이 오는 25일로 임박해 협상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나오게 하는 요인이다. 공정적 조짐도 감지된다. 박 지사가 면담 과정에서 동행한 대회 운영 기업인 KAVO 대표와 F1조직위 관계자, 통역도 물리치고 2시간 가까이 단독 면담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모든 결정권을 가진 조직위원장으로 버니 회장에게 결정적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준영 지사〉 〈버니 회장〉

협상안을 제시한 뒤 버니 회장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 지사의 협상 성과 발표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한편, F1 대회 개최권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전남도가 L/C개설로 지급 보증해야 하는 금액은 내년 대회 개최비용은 560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1·3월 지급하는 TV 중계권료(178억)를 더하면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738억원에 이른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차세대 가속기’ 개발 5억 신규 반영

국회 교과기술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50억원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의 현안 사업인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

교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예산 가운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계용역비 50억원과 유엔대학 부설연구소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운영비는 15억원으로 증액했다.

교과위는 또 ▲전남대병원 외래 및 중앙수술실 개보수 50억원(증액)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56억원(증액), 동아시아교육센터 96억원(증액) ▲목포대 예술관 연주홀 13억원(증액), 약대 동물실험실 15억원(증액) 등을 추가로 반영해 예정위로 남겼다.

교과위는 아울러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원 증액한 1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아, 네월아 하는 동안...

“역사 개악... 이주호 장관 사퇴하라”

‘5·18 삭제 집필기준 이대론 안된다’ 긴급 토론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역사교육연대회의는 21일 서울 국회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민중항쟁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 ‘역사교과서 개악 이대론은 안 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집필기준 개악이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상명대 주진오 교수가, 발제는 연세대 이인재 교수와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가 맡았다.

이인재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악은 한국인의 자주국가·민주국가 확립의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권력과 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이념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필 기준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철 교수는 “역사교육에 독재정권이 개입한 이래 대부분 논란은 보수적 정치권이 주도하거나 그와 결탁한 민간세력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치권이 개입한 역사교육 논란이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토론자들은 발제자들이 지적한 역사 조작과 정치적 개악, 집필 기준제도 철폐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김유정 의원은 “현 정권의 역사교과서 개악과 역사 논란은 철저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수구세력과 현 정부의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어 구조적이고 정권 차원의 역사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정협 5·18기념재단 상임연구원과 오세운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평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성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소가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시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옻에도 공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된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